

니카라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니카라과에 잘 도착했습니다. 수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목요일 아침에 니카라과에 도착해서 몸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들은 귀한 시간들을 아껴 목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가 개척 건축한 뼈까야 예일교회에서 중보기도, 미용, 안경, 치과,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니카라과 한인교회에서 전체 팀들이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전도집회를 위한 준비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금요일은 아침부터 몹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호텔에서 약 두 시간 걸리는 상 라파엘 델 수르에서 전도집회가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경건회를 하고 식사 후 7시 경에 상 라파엘 델 수르로 떠났습니다. 우리 팀이 사역한 곳은 니카라과 크리스천 캠프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주유소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이 여러 개의 사업을 다 정리하시고 니카라과에 오셔서 큰 땅을 사서 크리스천 캠프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건물이 새 건물이고 장소가 쾌적해서 사역하는 데 역대 최고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중보기도, 미용, 네일, 침술, 치과, 안경, 내과진료 및 약품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은 노방전도를 나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축구장에서 전도집회를 했습니다. 그 도시 시장님도 참석한 가운데 그 지역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속에 집회의 열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도요원들은 그들의 주소를 적었고 우리 팀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서로 안고 기도하는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니카라과 한인교회로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 밤에 된장국을 맛있게 먹고 호텔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들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꿀 잠을 잤습니다. 토요일은 마샤야 제일교회에서 오전 오후 사역을 하고 작년에 전도집회를 했던 축구장에서 저녁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선교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미국보다 불편한 곳이지만 이 곳의 영혼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CCM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4
HEALING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치유와 회복공동체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사순절II)

제 32권 8호 주후 2024년 2월 25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우영주목사	우영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15장		
기도	박병규집사	김현수장로	김용호장로
성경봉독	왕상(1 Ki.) 19:1-12		
찬양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천사의 어루만짐 우영주목사		
찬송	620장		
봉헌	다같이		
봉헌찬송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우영주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일예배(F.M.A.성경공부) 2월 28일 오후 8:30

- 기도: 권미정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이규희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김태근A집사
- 2부: 김동환장로
- 3부: 전용수장로

2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최길옥권사
- 3부: 장연희권사, 길희정집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 니카라과 전도대회 선교중인 담임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 **수요예배:** F.M.A.성경공부 '마가복음'
- **영아유치부 학부모회(PTA)모임:** 오늘 식사 후 12시 40분, 자모실
- **2월 선교회 월례회:** 오늘 식사 후, 각 선교회별로
- **2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각 목장별로 3월 1일 (금)까지
- **목회데이터 연구소 설문조사:** 목장별로 배부된 링크 이용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맨하탄 전도사역:** 3월 3일(토), 오전 9시 교회, 9시 40분 베이사이드 (문의: 박성하목사, 김영애권사)
- **예일교회 교적등록부:** 작성하여 부목사실 제출
- **제자훈련 프로그램 안내:** 신청서 부목사실 제출
 - * 제 59기 제자훈련 101: 3/05(화) - 6/11(화), 15주
 - * 제 35기 제자훈련 201: 3/19(화) - 6/11(화), 13주
- **강단꽃 장식:** 김명숙권사(둘째아들생일) 함제완집사(주아생일)
 사랑의 식탁: 김명숙권사(둘째아들생일) 함제완집사(주아생일)
 박정호집사&박지숙권사(예은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송광수장로 다음주: 오현섭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1마을&8마을 다음주: 2마을
- **2월 헌금위원**
 - 1부예배: 박진두집사 한문차집사 2부예배: 김선태집사 김오신권사 구본원권사 이상희집사
 - 3부예배: 김영애권사 김정현권사 유희정권사 김동욱집사 박보라집사 전복희집사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9:30am and 11am Services. Zoom QR Code:



38년된 병자의 치유(요 5:1-15)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다.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 세 번째 표적이다. 표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본문 줄거리]

예수님은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1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 ‘양문’은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들여오는 문이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다.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었다. 거기 38년된 병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 가셨다.

[의미]

‘명절’은 기쁨과 축제의 날이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기쁨도 축제도 없는 고통과 신음의 장소였다. ‘베데스다’는 자비도 없이 경쟁에서 낙오된 패배의식만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늘진 곳, 고통하며 신음하는 곳을 찾아 오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는 희망이다.

[38년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

1. 첫 번째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6절)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 겨울이나 봄의 새싹같은 말씀이었다. 그러나 우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물으셨다. 엮어진 그릇에 기적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원망 섞인 말을 했다. 갈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2. 두 번째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절).
 “일어나라.”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다. 자신의 무기력은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이다. 순종하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전해졌다. 그 힘으로 일어섰다. 그 분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하셨던 하나님이다(요 1:1, 14).
 “자리를 들어라.” 지금까지 깔고 누웠던 자리(죄된 습관, 패배의식, 옛 생활, 열등감, 원망)를 버려야 했다. 그래야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를 주저앉게 했던 옛 습관의 자리를 던져 버리라. 불 태우라.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되게 하라.
3. 세 번째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14절).
 여전히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죄를 범하면 38년 지배했던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결론]

이 표적과 연관된 예수님의 자기 표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요 11:25) 일 것이다.

- 1) 오랜 시간동안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
 - 2) 삶의 무게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사람.
-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자. 주님은 우리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쓰러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신다.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행사예고

- 03/10(주일) 일광절약시간 시작
- 03/11(월)-12(화) 뉴욕노회
- 03/14(목) 실버클럽 시작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02:00)

방송설교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